

성철의 꿈과 김룡사 운달산 법회(1966)

김광식*

• 목 차 •

- I. 서언
- II. 김룡사 시절의 개요
- III. 김룡사에서의 행보
- IV. 결어

* 동국대학교 특임교수.

© 『大覺思想』 제33집 (2020년 6월), pp.101-141.

한글요약

본 고찰은 성철스님의 그동안의 연구에서 누락되었던 김룡사 시절의 행적과 역사성을 탐구한 고찰이다. 지금까지 성철 연구에서 소홀하게 인식되었던 김룡사 시절의 운달산 법회(1966)의 개요와 성격을 조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성철의 지성 및 사상에 관련된 역사적 행보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고찰에서 탐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철의 김룡사 시절(1965~1966)의 개요를 정리하고자 한다. 둘째, 김룡사에서 두차례 행해진 운달산 법회의 개요와 성격을 탐구하고자 한다. 셋째, 성철이 김룡사 이전에서는 10년간 은둔적인 행보를 가다가, 김룡사에 입주하면서 공개적인 행보를 간 배경을 탐구하고자 한다. 왜 성철은 김룡사에서부터 그의 사상을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나섰는가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즉 성철은 김룡사 시절에 불교혁신, 불교중흥을 강력하게 피력하였는데, 이를 주목하고자 한다. 넷째, 성철의 김룡사 시절에는 대학생불교연합회의 회원(구도부)들의 왕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역사를 탐구하고자 한다. 다섯째, 김룡사에서 행해진 법문과 해인사에서 있었던 백일법문과의 상관성을 주목하였다. 백일법문에 대한 연구는 심화되었지만, 김룡사에서 행해진 법문의 개요, 내용은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때문에 운달산 법회가 연구해야 됨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본 고찰의 내용은 성철의 행적, 사상, 개혁 등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기된 내용은 1960년대 불교 지성사, 정화운동사, 개혁운동사에서 중요한 관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성철, 김룡사, 운달산 법회, 백일법문, 개혁운동, 대학생불교연합회

I. 서언

성철은 한국 현대불교를 대표하는 고승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양산되었다. 지금까지 성철의 연구는 사상, 행적, 영향 등에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성철불교의 성격, 위상 등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성철에 대하여 탐구할 대상은 아직도 적지 않다. 최근 성철불교에 대한 비판적인 글이 노정되는 가운데 필자는 성철연구는 자료에 근거하여 실사구시적인 객관성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성찰적으로 보건대 기존 연구에서 우호성, 난해성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기존 연구를 비판하는 글에서도¹⁾ 감성적, 단정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판성이 노정되고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은 성철연구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본 고찰에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유의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성철의 김룡사 시절을 다루고자 한다. 성철이 김룡사에 머문 기간은 1년 6개월(1965.4~1966.10)이었다. 성철이 김룡사에 머문 기간은 짧았지만, 김룡사에 있었던 성철의 행적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첫째, 성철은 김룡사에서 조실의 직함을 갖고 공개적으로 대중들을 지도하였다. 이렇듯이 김룡사 시절의 성철은 그 이전의 은둔적(성전암) 행보를 벗어나 공개적인 행보를 갔다. 왜 그렇게 그는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는가? 봉암사 결사, 해인사 주석, 해인총림 방장, 백일법문도 중요하지만 김룡사 시절도 일정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그는 파계사 성전암에서 모색하였던 불교의 미래를 위해 모색한 꿈을 김룡사 시절부터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둘째, 이 글에서는 김룡사에서 행

1) 서명원, 『가야산 호랑이의 체취를 맡았다 ; 퇴옹성철, 이 뭇고?』, 서강대출판부, 2013.; _____, 『산은 산 물은 물 ; 성철불교에 대한 검토』, 광일문화사, 2019.

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라 대불련으로 약칭) 소속 구도부 대학생의 지도 및 운달산 법회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성철은 대불련 구도부 학생들을 김룡사에서 치열하게 가르쳤는데,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는 흥미로운 주제이다. 그리고 성철은 김룡사에서 2회에 걸쳐 공개적인 불교 법문을 하였는데, 이를 운달산 법회라 칭한다. 지금까지는 해인사에서의 백일법문(1967~1968)을 주목하면서도, 백일법문이 있기 1년 전에 행해진 김룡사 운달산법회(1966)는 주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집필한 이 글이 성철 생애사를 재인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금껏 성철연구는 주제, 사상에 의거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성철의 삶을 단계별의 인식, 지성, 실천 등에 대한 관점에서 탐구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성철의 불교개혁론을 연구하던 15년 전에는 김룡사 시절의 행보를 서술에서 누락하였다.²⁾ 성철선사상연구원에서 그간 연구 대상에서 김룡사 시절은 주목하지 않았다.³⁾

그래서 그후 필자는 성철의 김룡사 역사를 보충하기 위하여 김룡사에 대한 자료 수집과 증언 청취를 하였다. 즉, 기존 연구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 글을 집필하였음을 밝힌다. 이 글의 초점은 성철의 김룡사에서의 행적을 조명하고, 운달사 법회의 개요와 성격을 정리하여, 성철이 김룡사에서 꿈을 꾸었던 실체는 무엇이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어쨌든 이 글이 성철연구에 일조가 되기를 바라면서, 미진한 점은 지속적인 탐구로 보완하고자 한다.

II. 김룡사 시절의 개요

성철이 김룡사에 입주한 시점은 1965년 봄이었다.⁴⁾ 성철은 1955년 거

2) 김광식, 「이성철의 불교개혁론」, 『한국 현대불교사 연구』, 불교시대사, 2006.

3) 예컨대 2006년 11월 27일, 성철선사상연구원이 ‘1960년대 전후 상황과 성철스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도 김룡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을, 파계사 성전암에 입주하여 철조망을 치고 약 10년간 은둔적인 수행을 하였다. 이 기간에 성철은 경전 열람, 참선정진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사상을 더욱 더 가다듬었다. 성전암 시절 불교정화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나,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불교정화의 방법과는 다르다는 명분으로 정화운동의 일선에는 나가지 않았다.

한편, 성철은 1964년 가을에 성전암을 나왔다. 그는 흥국사 정수암을 거쳐 그해 겨울에는 도선사에 머물렀다.⁵⁾ 도선사는 봉암사 결사의 동지인 청담이 머물렀던 곳이다. 그 당시 청담은 도선사에 입주하여 중창불사를 하고, 실달학원의 설립이라는 새로운 교육 개혁을 시도하였다.⁶⁾ 도선사에 머물던 성철은 청담의 그 개혁 작업에 도움을 주었다.

성철은 1965년 봄 무렵, 김룡사에 입주하였다. 김룡사는 일제하에서는 경북지방의 본사이었으나, 그 당시에는 본사로 승격된 직지사의 말사이었다. 성철이 김룡사로 입주함에 있어서는 그 당시 시봉을 한 천제(해월정사, 성철의 맞상좌)의 회고가 참고 된다.

삼각산 도선사에서 겨울을 지내고 은사스님을 모시고 갈 곳을 물색하던 중 김룡사가 적지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당시 김룡사는 비구니 스님들이 주거하고 있었으나 사찰의 규모가 커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안고 있었고, 산내 암자인 양진암은 묘전스님이 머물고 있었다. 묘전스님은 청담스님의 따님인 묘엄스님의 사형이고 성철종사님 받드는 일에 헌신하신 분이다. 현경스님은 출가하기 전에 김룡사에서 사무를 도운 일이 있어서 이러한 김룡사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묘전스님의 안내로 성철종사님을 뵈게 된 분이다. 묘전스님과 현경스님의 인연으로 김룡사가 은사스님을 모시고 대중회상을 이루는데 적합하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⁷⁾

4) 정확한 입주 시점은 알 수 없다. 추후, 파악할 내용이다.

5) 김광식, 『아! 청담』, 화남, 2004, p.149.

6) 김광식, 「청담의 불교근대화와 교육 문제」, 『불교근대화의 이상과 현실』, 선인, 2016, pp.299-301.

7) 천제스님, 「성철종사님을 모신 일들을 회상하며」, 『禪으로 가는 길』, 2006년 3월호, p.79.

위와 같이 당시 김룡사는 비구니가 주지로 있던 사찰이었다. 묘전은 1950년대 후반 경(?)부터 주지이었다.⁸⁾ 성철이 입주하기 직전에는 김룡사 양진암에 있었던 묘전의 권유와 자운스님의 상좌이었지만 성철과 인연이 많았던 현경의 도움으로 입주의 결단을 하였다. 특히 묘전의 제안이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다.⁹⁾ 묘전의 결단에 대해서는 묘전의 사제인 묘엄의 회고가 참고 된다.

그전에 김룡사를 우리 사형님(필자주, 묘전)이 맡아서 있다가 성철스님이 가 계실 때가 없다고 해서 김룡사를 내드렸거든요. 우리는 김룡사 안에 있는 양진암이라는 데로 옮겨 앉았는데 그때 서류절차도 밟지 않고 본사에 보고도 안 하고 저거 큰스님이라고 내줬다고 해서 욕을 하더라고요.¹⁰⁾

요컨대 묘전의 결단으로 성철이 입주를 하였다는 것이다. 성철의 입주는 그가 김룡사 인근에 있는 봉암사와 대승사에서 수행을 하였던 연고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김룡사 주지는 서옹(백양사)이 맡기로 하지만 입주하지는 않았다. 이름만 빌려주는 名字 주지에 대한 동의를 하였기에 행정 조치를 하고¹¹⁾ 입주를 하였다. 그 당시 소임을 본 대상자는 다음과 같

8) 김용환, 『香聲』, 봉녕사승가대학, 2008, p.221. 1950년대 후반은 묘전이 주지이었다. 묘전의 주지 임기는 객관적 기록에 의해서 확인해야 한다. 『한국비구니 名鑑』, 한국비구니연구소, 2007, p.147에는 묘전이 1954~1959년에 김룡사 총무로 나온다. 묘엄은 당신의 사형인 묘전이 김룡사에 머물 때인 1956년 경 김룡사에서 두달 가량 머물렀는데, 그 때의 대중은 30여명에 달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1955년부터 진오가 주지이었다는 내용도 있다. 하춘생, 『깨달음의 꽃』 2권, 여래, 2001, p.100. 묘전, 진오의 김룡사 주지 근무에 대해서는 문헌 기록에 의거, 재서술 되어야 한다. 하춘생은 진오가 1964년 동안거 해제 직후, 주지직을 내려 놓았다고 서술했다. <대한불교>, 1961.2.25, 「주지 및 승니 의무금 - 수금에 헌신한 비구니 스님」의 내용에 묘전(김룡사)이 나오는 것을 보면, 묘전은 1961년 2월 무렵에 김룡사 주지이었다. 때문에 진오가 1955년 가을부터 주지를 하고, 1959년 가을부터는 묘전이 주지이었다고 이해된다.

9) 김택근, 『성철평전』, 모과나무, 2017, p.412.

10) 『종단사 연구 인터뷰 녹취록』, 조계종 불학연구소, 2007, p.139.

11) 조계종 총무원에서 인사 발령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¹²⁾

조실 ; 성철
 주지 ; 서용
 총무 ; 법전, 도성
 재무 ; 현경
 교무 ; 동진
 회계 ; 천제
 원주 ; 허주, 도선

성철은 조실로 지칭되었는데, 이는 성철이 제도권 불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화 하였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서용은 1970년대 조계종 종정을 역임한 선사이었는데 그 당시는 동국대 대학선원장을 맡았다.¹³⁾ 법전은 성철의 지도를 받은 수좌이었는데, 그 후에 해인사 방장 및 조계종단의 종정을 역임하였다.¹⁴⁾ 도성은 부산 태종대에서 지금도 수행중이고, 현경은 해인사 주지를 역임하였다.¹⁵⁾ 위와 같은 초기 대중의 모습을 전하는 <사진 1-1>이 있다. 이 사진은 청담과 서용이 김룡사를 방문할 당시에¹⁶⁾ 촬영을 한 것이다. 사진에는 대중인 법전, 도성, 천제, 동진 등이 보인다.

12) 천제스님, 대원스님의 증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유철주, 『성철스님을 그리다』, 장경각, 2018, p.295.

13) 1963년 11월부터 소임을 보았다. 후임자인 탄허스님은 1966년 9월에 취임하였다.

14) 『만고의 진리를 향해 나홀로 가노라』, 장경각, 2013, pp.171-172. 법전은 김룡사 초기에 총무를 3개월 가량을 보다가 떠났다. 그러나 운달산 법회를 마치고 기념 사진을 찍던 촬영시에는 있었다. 그의 자서전(『누구 없는가』, 김영사, 2009.)의 연보에는 김룡사 금선대에서 수행하였다고 나온다.

15) <대한불교> 1978.10.8, p.3, 「해인사주지 현경 입적」

16) 시점은 알 수 없다.



<사진 1-1> 성철과 김룡사 대중(청담과 서옹의 방문 기념)

아무튼 입주한 대중들은 사찰 내의 환경 정리 작업을 우선적으로 하였다. 성철의 방은 명부전 옆의 작은 방이었다.¹⁷⁾방이 협소하여 1966년 4월부터 공사를 하여 1966년 8월에 上禪院이라는 조실채를 지어 성철이 입주하였다.¹⁸⁾ 성철이 애지중지 아끼던 다수의 책들은 김룡사 법당의 구석에 두면서 활용하였다.¹⁹⁾

한편 사찰 재정이 빈약하여 전 대중이 농사를 짓고, 수학여행에 온 학

17) 설해목을 이용하여 작은 방을 만들었다고 한다.

18) <대한불교> 1966.8.28, p.3, 「金龍寺 上禪院 낙성」 5칸의 집을 지으려고 하였으나, 사정상 4칸으로 지었다고 천제스님은 회고하였다. 상선원의 주련은 성철스님이 좋아하는 한문 계송을 써서 붙였다.

19) 천제스님에 의하면 그 책들은 온전하게 이용되지 못하였다고 한다. 성철 거처인 조실채인 상선원을 지으면서 중요한 책들만 골라서 성철이 활용하였다.

생들을 수용하여 재정을 보충하기도 하였다. 당시 사정은 천제의 증언에서도 확인이 된다.

김룡사의 주지는 석호스님의 이름으로 임명장을 받아서 갔는데, 석호스님은 이름만 띠고 한번만 다녀가시고, 우리가 들어가 살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저는 50여명의 대중을 외호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죽을 고생을 하였습니다.²⁰⁾

이렇듯이 50여명의 대중이 정진을 하였다. 주지 발령을 받은 서옹은 상주하지 않았다.²¹⁾ 그때 김룡사에 성철이 입주하였다는 소문이 돌자, 참선정진을 하는 수좌들이 오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큰방에서 함께 정진하였다. 당시 수행 대중으로 1965년 여름부터 정진을 하였던 대원(학림사, 원로의원)의 회고를 소개한다.

그때 저하고 같이 참선 정진을 하던 수좌스님들은 십 여명 이었습니다. 기억나는 스님은 무량, 각수, 삼소, 운산, 도명, 만오 스님 등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참선을 할 때에는 절의 소임을 보던 스님들도 다 함께 하라고 성철스님이 말씀을 해서 대중 전체가 하기도 했습니다.²²⁾

즉 10여명의 수좌들이 김룡사에서 성철의 지도를 받으면서 정진하였다. 수좌들은 김룡사 내의 큰방에서 정진을 하였다.²³⁾ 여러 기록과 증언을 종합하면 김룡사에 있었던 대중으로 도우(도선사), 도견(해인사), 구한(원응스님, 서암정사),²⁴⁾ 만오, 삼소(부산, 정혜사), 성일(성전암부터 시봉, 동

20) 김광식 엮음, 『자운대율사』, 자운문도회, 2017, p.178.

21) 『맑은소리 맑은 나라』 230호(2019.2), p.17. 대효(제주 원명선원)는 1966년에 김룡사를 가서 서옹스님을 만났고, 대중들이 많았다고 회고하였다. 그는 이때 서옹을 만나 은사로 삼고 출가하였다.

22) 대원스님, 「성철스님 관련 대원스님 인터뷰」, 『조계종단의 개혁과 정화의 제문제』, 중도, 2018, p.692.

23) 금선대를 중수하여 수좌들이 머물렀다고 하나, 확인할 내용이다.

24) 김광식, 『처처에 나툰 보살행 ; 석암스님의 수행과 가르침』, 석암문도회, 2011,

산 상좌), 만수(금각사 주지, 행자 · 상좌),²⁵⁾ 종진(해인사 강주 · 율주),²⁶⁾ 경선(범어사 주지, 행자)²⁷⁾ 등도 있었다. <사진 1-2>는 초기 시절의 대중을 보여준다.



<사진 1-2> 청담일행의 김룡사 방문 기념(동산스님 입적 직후, 1965.5)

이 사진은 1965년 5월(음, 3월 23일) 동산의 입적으로 범어사의 영결식에 가는 청담(중정 역임) 일행이 김룡사를 방문할 때의 장면이다.²⁸⁾ 조실

p.229.

25) 유철주, 『성철스님을 그리다』, 장경각, 2018, p.42. 김룡사에서 사미계를 받았다.

26) 종진은 장기간 머물지는 않았다. 『이 길의 끝에서 자유에 이르기를』, 조계종출판사, 2013, p.129.

27) 행자 생활이 힘들어 김룡사를 나와 범어사에서 수계하였다. 천제스님에 의하면 만연이라는 범명을 준비하였으나 김룡사를 떠났다고 한다. 채문기, 『천장에서 달을 보다』, 모과나무, 2019, p.245; <불교신문> 2019.12.21., p.9, 「한 장의 사진 ; 범어사 주지 경선스님의 성철스님 문하 행자시절」

28) <불교신문> 2019.12.21, 「한장의 사진 ; 범어사 주지 경선스님의 성철스님 행자

성철, 주지 서옹을 비롯해 방문자인 청담, 청담의 시봉인 혜성(도선사)과 녹원(직지사)·선래(범어사), 그리고 대중인 법전, 도성, 종진, 경선(범어사 주지, 당시 행사) 등이 보인다.

한편 성철은 김룡사 대중을 지도하였다. 그는 당신의 방으로 와서 질문을 하는 수좌와는 문답 거량을 하였으나 대중들이 공동으로 정진하는 참선 시간에 가서 지도는 하지 않았다.²⁹⁾ 그러나 결제와 해제에 법문을 하였고, 공양을 하고 나면 古史를 갖고 소참법문을 하였다. 그리고 김룡사에서 정진을 하려면 능엄주의 암송과 3천배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되었다. 또한 성철이 법문을 하던 때에는 수좌, 대중, 신도, 비구니가 함께 들었다고 한다.

이렇게 성철은 대중과 함께 정진을 하고, 다음 장에 후술하겠지만 대학생들의 지도 및 운달산 법회로 지칭되는 공개 법문을 하였다. 그리고 1966년 10월에 해인사 백련암으로 갔다. 그가 김룡사에 1년 6개월 만 있다가 해인사로 간 것은 청담과 자운의 권유에 의한 것이다. 원택은 『성철스님 행장』에서는 “가을 무렵 자운스님의 권유로 해인사 백련암으로 옮겨 동안거를 지냈다”고³⁰⁾ 간단하게 썼다. 그러나 성철의 해인사행은 간단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었다. 그 내면에는 그 당시 해인사에 총림을 세우려고 하였던 청담·자운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에 대한 천제와 대원의 증언을 제시한다.

여기치 않은 각종 재난에 황당해 하던 때에 “백련암을 비워 놓았으니 고생 그만하고 스님 모시고 해인사에 오라”고 하신 자운스님 말씀에 은사 스님을 모시고 해인사로 간 것이(천제스님 증언)³¹⁾

시절].

29) 대원스님은 자신은 몇 번 찾아가서 문답을 하였으나, 다른 대중은 성철과 대화하는 것을 거북하게 여겨 혼자 가서 질문을 하였다고 하였다. 위의 책, p.693.

30) 원택, 『성철스님 행장』, 글씨미디어, 2012, p.110.

31) 위의 책, 『선으로 가는 길』, p.82.

팔공산에서 10년 지나고 난 후에 김룡사에서 사실은 법회를 시작한 거예요. 김룡사 결사를 그렸는데 그 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이 그 봉암사가 낫겠다고 해가지고 봉암사에 몇 분이 갔었더랬어요. 그때 덕산거사 그이가 지원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 중략 ...

법문은 저기 김룡사, 운달산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 자 이제 거기가 부족하자고 해서 그 덕산거사가 봉암사를 얘기했는데, 봉암사를 생각했던 즈음에 그래도 봉암사보다는 해인사가 더 의미가 있다 해가지고, 해인총림을 만들어서 가게 되게 그 이듬해 이듬해예요.(천제스님 증언)³²⁾

그때가 아마 1966년인가 그런데 청담스님, 자운스님, 서옹스님이 오신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 스님들과 성철스님이 나눈 대화는 저는 지켜볼 처지가 아니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스님들이 가고 난 후에 대중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철스님을 해인사에 설립이 되는 해인총림의 방장으로 모신다는 말이었습니다. ... 중략 ... (필자 주 ; 동산스님과 향곡스님이 해인총림의 방장을 거절하자) 그러자 해인사 선방의 수좌들이 전강스님을 모셔 와야 한다는 말들이 나왔대요. 그러니깐 해인사에 있었던 자운스님이 책임자인 성철스님을 빨리 해인사 백련암으로 모시고 갔다고 그래요. 청담스님이 성철스님 밖에 방장할 스님이 없다고 하면서 권유를 했대요. 저는 그런 소리를 그 후에 향곡스님에게 들었지요.(대원스님 증언)³³⁾

성철은 봉암사에서 예전의 꿈을 재현하려는 모색도 하였다. 그러나 천제와 대원의 증언에³⁴⁾ 의하면 청담, 자운, 서옹의 제안 즉 성철이 해인총림의 방장으로 가야 한다는 권유를 수용한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당시 해인사 구성원(당시 주지, 영암)의 이해관계도 조금은 작용하였다.

32) 조계종 불학연구소, 『종단사 연구 인터뷰 녹취록』, 2007, pp.20-21. 이 녹취록은 보관용의 프린트본이고, 출간되지 않았다. 인터뷰는 필자가 하였다.

33) 위의 책, 『조계종단의 개혁과 정화의 제문제』, 중도, 2018, pp.695-696.

34) 대원은 <불교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청담을 김룡사에서 만났다고 회고하였다. <불교신문> 2015.11.30, 「내가 기억하는 큰스님 원로의원 대원스님, 대원은 1965년에 김룡사에서 청담이 해인총림 지정과 관련하여 성철을 만나러 왔다고 회고했다.

즉 해인사 선원의 일부 수좌들이 당시 명성을 떨친 해인사 외부의 선사를 초빙하려는 것에 대응한 내용이 있었다는 측면이다. 그에 대한 원택의 증언을 제시한다.

(김광식) 질문 ; 화제를 돌려서, 자운스님이 성철스님을 1967년에 출범한 해인총림의 방장으로 추대하신 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운스님께서 조계종단 및 한국불교의 차원에서 성철스님을 방장과 종정으로 추대하였다는 말이 있어요.

(원택스님) 답변 ; 저도 자운스님께서 성철스님을 조계종단 차원에서 그렇게 모셨다는 노력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운스님이 “해인사의 범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철스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서 문경 김룡사에 머물던 성철스님을 해인사 백련암으로 옮겨오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명분도 수긍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오늘은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이것은 제가 출가하기 이전이라서, 저도 들은 것입니다.

자운스님이 김룡사에 있었던 우리 스님을 해인사로 모신 근본 동기는 여러 사정이 있었던 듯합니다. 자운스님이 성철스님을 모시려고 할 때에는 북쪽에 선(禪)의 큰스님이 계셨는데, “내가 해인사에 가서, 조실로 있고 싶다”고 자주 말씀하셨답니다. 그런 말을 자운스님과 영암스님이 전해 들으시고는 ‘침차 선사(禪師)들이 대접을 받는 시절이 되어 가고 있으니, 언젠가는 선방세력들이 힘을 얻고 그러면 해인사도 힘 있는 선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하셨대요. 그런 기류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를 고민한 자운스님이 ‘김룡사에 있는 성철스님을 해인사로 모셔 오면, 우리 산중에도 선사가 있으니 외부의 바람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도반을 추천한 것이라고 그래요.³⁵⁾

여기에 나오는 해인사 조실로 오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한 선사는 전강이었다. 당시 그는 인천 용화선원에서 수좌 제접을 하면서 명성을 날렸다. 요컨대 성철의 해인사 입주는 해인총림의 방장 취임이라는 공적인 측면과 해인사 운영권을 지키려는 해인사 내부 대중의 결함에 의해서 나

35) 김광식, 『자운대율사』, 자운문도회, 2017, p.230.

온 것이라 하겠다.

이런 배경에서 1965년 12월 무렵 해인사에 총림 설립이 기정 사실화가 되고,³⁶⁾ 성철의 해인사 입주가 1966년 봄 무렵에 결정되자, 성철의 시봉인 천제는 그 이후에 백련암으로 와서³⁷⁾ 사전 준비(사찰 정비 등)를 하였고, 성철은 1966년 10월에 해인사로 갔다.³⁸⁾

Ⅲ. 김룡사에서의 행보 ; 대불련 구도부의 지도 및 운달산 법회

성철은 김룡사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불교의 미래를 위한 꿈을 꾸었다. 그리고 그를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하였다. 봉암사 결사의 단행, 성전암에서의 10년간 은둔적 수행, 서울 도선사에서 경험 등을 거쳐서 김룡사에 온 성철은 이제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천제의 회고가 참고 된다.

김룡사 시절은 저로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스님은 불교와 종단의 미래를 걱정하시면서 당신이 하실 일에 대한 것을 준비하셨지요. 김룡사 시절에 달력의 이면지에 쓰신 여러 메모의 글들이 그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스님은 그런 친필 메모를 쓰시면서 그를 책상 안에 보관하셨습니다. 저는 그 시절, 그 내용은 잘 몰랐지만, 그것을 쓰신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김룡사 시절은 성철스님의 일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봉암사의 꿈을 재현하기 위해 봉암사에도 두 번인가를 가보셨습니다. 한번은 신도차를 이용해서, 또 한번은 덕산 이한상 거사 차를 타고 갔어요.³⁹⁾

36) <대한불교> 1965.12.5, 「해인사에 중앙총림 내년도에 설치」

37) 천제스님은 그 시점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몇 달 전이라고만 필자에게 증언하였다.

38) 위의 책, 『자운대울사』, p.231.

39) 위의 책, 『조계종단의 개혁과 정화의 체문제』, 중도, 2018, pp.683-684.

이렇게 성철은 당신이 지난 세월에 추구한 행적을 회고하고, 정리하였다. 이는 무엇을 위함인가? 새출발, 재출발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성철이 김룡사에서 1965년 8월 22일에 쓴 행적을 회고한 문건의 제목은 ‘봉암사의 꿈’이었다.⁴⁰⁾

이렇게 성철은 김룡사에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였다. 이런 구도에서 그가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은 대학생들에게 그가 갖고 담은 불교의 핵심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대불련의 학생들이 김룡사로 와서 성철을 만난 시점은 1965년 8월 31일이었다. 당시 대불련은 그 산하에 求道部를 두었다.⁴¹⁾ 구도부는 불교의 신행을 투철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체이었다. 1965년 7월 13~23일, 대불련은 범어사에서 전국 수련대회를 하였다. 이 대회에 참가하였던 서울 지역의 구도부 학생들은 상경하는 과정에 통도사, 동화사, 해인사 등의 고승을 친견하는 수련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철을 친견하였던 것이다.

여름방학에는 구도부 특별 수련대회를 가질 계획이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련대회 대신 전국에 주석하고 있는 선지식 친견(親見) 구도행각을 하기로 했다. 구도부 14명은 4차 수련을 마치고 설봉, 석암, 경봉, 월하, 인홍, 벽암, 효봉, 향곡, 서운, 구산, 지월, 자운, 성철, 추담스님 등 전국의 큰 스님을 친견하고자 선암사 - 통도사 - 석남사 - 동화사 - 해인사 - 김룡사 - 법주사 등을 순례하였다.⁴²⁾

이렇듯이 구도부의 선지식을 친견하는 구도행각에 참여하여 김룡사에서 성철을 친견한 대상자는 14명이었다.⁴³⁾ 구도부는 8월 31일 저녁, 김룡

40) 『고경』 9호(1998, 봄)에 수록되었다. 『동산대종사와 불교정화운동』, 영광도서, 2007, p.348. 그런데 지금껏 널리 알려진 문건은 8월 21일의 것이다. 8월 22일(일요일)의 문건의 처음이 ‘鳳巖寺의 꿈’으로 시작된다. 8월 21일(토요일)의 문건 사진은 김광식, 『보문선사』, 민족사, 2012, p.172에 나온다.

41) 김광식, 대학생불교연합회의 구도부와 봉은사 대학생수도원, 『불교근대화의 이상과 현실』, 선인, 2014.

42) 김선근, 『김선근교수 에세이집, 모든 이웃을 부처님처럼』, 민족사, 1999, p.194.

사에 도착하여 성철에게 인사를 하였다. 그리고 9월 1일 오후에 삼천배 절 수행을 법당에서 7시간 반에 걸쳐 하였다. 학생들의 3천배는 성철의 강력한 주문에 의한 것이었다.

1965년 8월, 그 여름에 나는 방학을 맞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의 구도회 원들과 함께 선지식을 친견하는 구도순례 법회중이었다. 그 마지막 일정이 바로 큰스님을 친견하는 법회였다. 그런데 우리가 큰스님을 친견하는 데는 조건이 따랐다. 부처님께 3000배를 올리는 일이었다. 선지식 친견법회를 이미 10일째 진행해 오던 터라 우리는 지칠대로 지쳐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큰스님을 친견하고, 큰스님의 범력으로 부처님의 지건을 체득하리라는 원력을 세우고 절을 시작하였다.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무려 일곱 시간 반 동안 3000배를 하였다. ... 중략 ...

그런 우리가 기특하셨는지 큰스님께서서는 원주 스님에게 큰 양동이에 미숫가루를 타 가지고 오게 하시더니, 손수 한 그릇 떠주시며 우리를 격려해 주셨다.⁴⁴⁾

학생들은 성철이 조건부로 제시한 3천배를 무사히 하였다. 그리고 나서 운달산 정상까지 2시간을 뛰어갔다 오는 것도 마쳤다. 이것도 성철의 주문이었다.⁴⁵⁾ 이런 고된 검문을 통과한 후에야 성철은 학생들을 진지하게 대해 주었다. 삼천배와 등산을 마친 밤 10시에 성철은 학생들을 불렀다.

43) 이 명단은 위의 <대한불교> 1965.8.29, 「구도행각기」에 나온다. 13일간 구도부행각에 나선 인물은 김금태(구도회장, 경희대), 이무웅(대불련 회장, 동대; 홍파스님), 이진두(서울대), 김기중(경희대), 이용부(사무장, 동국대), 민건홍(동국대), 황귀철(중앙대), 김선근(동국대), 이상화(경희대), 박명순(수도사대), 홍애련(경희대), 조길자(서울대), 김명자(적십자간호학교) 등 13명이다. 그런데 김룡사에서 그 지역 회원 1명이 추가되어 14명이었다. 추가 인물은 이상화(경희대)이었다. 당시 회원이었던 홍파스님도 14명이라고 회고하였다.

44) 김선근, 「내 인생의 등대」, 『가야산 호랑이를 만나다』, 아름다운 인연, 2006, pp.192-193.

45) 박성배, 「미국에서 강의한 『화엄경』 보현행원품」, 『광덕스님 시봉일기』 9권, 도피안사, 2008, pp.48-49.

그때 시자스님을 통해 전갈이 왔다. “지금 성철큰스님이 여러분들을 뵙자고 하시니 가지지요” 하는 거였다.

그래서 성철 큰스님께 다 함께 갔다. 가서 삼배의 예를 올리고 성철큰스님하고 열시 반부터 시작해서 새벽예불까지 법문을 들었다. 또 질문을 드리며 밤을 새웠다. 그때만 해도 지방 사찰은 새벽 세시에 일어나 세시 반부터 도량식 하고 범종 치고 예불을 올렸다. 새벽예불까지 꼬박 앉아서 법문을 듣고 우리가 질문을 하면 또 성철큰스님이 대답을 하셨다.⁴⁶⁾

성철은 이렇게 학생들에게 애정을 보였다. 그래서 9월 2~3일 이틀간 특별 법문을 20시간이나 해주었다. 그 내용은 불교의 근본인 중도, 우주의 실상, 우주와 합일이 되는 방법 및 가능성 등이었다.⁴⁷⁾ 성철은 학생들이 떠나는 날인 9월 4일 아침에도 화두에 대하여 진지한 강의를 해주었다. 그리고 학생들을 일주문까지 배웅을 하였다. 이와 같은 배려는 특별한 대접이었고, 학생들에게는 감동적인 가르침이었다.⁴⁸⁾

이와 같이 김룡사에서 성철에게서 특별 대접과 가르침을 받은 대학생들은 1966년 1~2월에도 김룡사에서 50일 간의 특별 정진을 하였다. 대불련 구도부는 1965년 1월 7일, 통도사에서 열린 대불련의 겨울철 수련대회를 마치고 김룡사로 향하였다.⁴⁹⁾ 김룡사에서 특별 정진을 하기로 예정되었기 때문이었다. 김룡사에서 성철의 지도를 받은 그 정진은 당시 불교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 전모를 보도한 기사를 제시한다.

지난 20일 김룡사에서 대학생불교연합회의 구도부원은 만 50일간의 정진 수도를 이성철 스님, 이행원 스님, 이덕산거사, 서돈각, 서경수, 박성배 교수, 신도 다수 참례 아래 회향하였다.

이들 구도부원들은 봉은사 입사생으로 있는 젊은 지성인이며 제5차 한국

46) 홍파, 『바람따라 물결이네』, 범성, 2013, pp.123-124.

47) 이에 대해 박성배는 불교의 핵심 사상에 대한 자상한 강의라 하면서 혜능의 『법보단경』, 조사 어록 등을 소개하여 주었다고 회고했다. 위의 책, 박성배, p.50.

48) <대한불교> 1965.9.26, 「구도행각기 完 ; 명산대찰, 선지식을 찾아」

49) <대한불교> 1966.1.16, 「대학생불교연합회 수련회 회향」

대학생불교연합회 동계 수련을 통도사에서 치룬 이후 1월 8일부터 2월 20일까지 50일간을 통하여 그들이 지금껏 실행하여 온 믿음에 확신을 갖게 하는 수련을 가진 것이다.

김룡사에서서는 한국의 젊은 불자가 생명을 다하여 구법함에 감격하여 李性哲스님이 직접 50일간 지도하였는데 스님은 백장청규에 의거하여 승가의 정법을 심어주려는 일념으로 지도하였다.

특히 김룡사에서 가진 이번 구도부의 수련은 한국의 젊은 지성이 불교에 귀의하여 불교적 이념과 사상을 체계화 시키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진리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는 수련이었다. 50일 간의 수련동안 일체의 책은 손에 들지 않고 다만 화두 공안에 철저히 면서 붓다가 깨달은 그 깨달음을 증득하려는 일사불란의 정신이 있었다. 구도부는 새벽 2시 30분에 기상하여 밤 9시에 자리에 들기까지 하나의 진리를 밝히려고 몸을 깎고 마음을 닦는 定에 들게 하는 일과 어느 구도인의 수도보다도 무서운 수련이었다.

회향을 7일 앞두고 구도부는 용맹정진을 하였는데 김룡사 말사 암자 대종과 석남사 대종이 참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용맹정진은 해제를 마친 다음에 한 것이어서 유례없는 정진이라고 한다.

이성철 스님은 환희심에 가득한 마음으로 학생을 지도하였는데 그 강론의 제목만 추려보면 ① 불교의 생명은 覺에 있다 ② 불교는 근본원리로서의 중도사상 ③ 현대과학과 불교의 합리성이었는데 이 모든 학설이 확연한 신념과 합리적인 논증에 놀랐다고 한다. 구도부원은 1일 3천번의 절을 하면서 자기의 죄업을 참회하고 신앙을 굳히는 계명을 다하였다고 한다. 이번 김룡사 정진 수도에 참가자는 전창열, 김금태, 이진두, 김기중, 황기철, 김선근, 이철교의 7명이다.⁵⁰⁾

대불련 구도부의 김룡사에서 수련의 개요와 성격은 위의 보도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수련에 대해서 그때에 참가한 이진두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50) <대한불교> 1966.2.27, p.1, 「求法の 使徒 大學生聯求道部 20일 용맹정진 회향, 金龍寺서 50일간의 禪과 修道」

김룡사에 도착 즉시 성철스님의 지시대로 모두 머리를 깎고 행자복을 입었다. 기상과 취침 시간은 대중스님과 같이 했다. 이때 성철스님은 나중에 『백일법문(百日法問)』으로 알려진 법문을 했다. 강의할 법문 교재는 구도부원 김기중과 김금태가 밤을 새우며 철필로 원지에 써서 등사기로 밀어 대중스님들께 배부했다.

구도부원은 스님의 강의에 대해 질문할 때를 제외하고는 종일 묵언했다. 아침 · 점심 · 저녁 3차례씩 3천배를 매일 하고, 사시엔 백팔배를 했다.⁵¹⁾

이제부터는 위의 <대한불교>의 기사와 이진두의 회고에 나온 수련의 개요 및 성철에서의 특이점을 살피고자 한다. 우선 수련의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시는 1966년 1월 8일부터 2월 8일까지 50일간이었다. 참가자는 대불련 구도부에 소속된 학생중에서 봉은사의 대학생 수도원에 入寺하여 수련을 하였던 학생들이 주체가 된 7명이었다.⁵²⁾ 수련 내용은 청규 실천을 근간으로, 책과 경전은 제쳐두고,⁵³⁾ 묵언 및 3천배, 그리고 화두 참선에 주력하였다. 학생들은 성철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서 화두를 받아 정진하였다.⁵⁴⁾ 이와 같은 학생들의 정진은 승려의 구도 생활과 흡사한 것이었다.⁵⁵⁾ 이와 같은 정진을 지도한 성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불교의 정법을 적극 표방하였다는 점이다. 그 이전 은둔 수행을 통해 치열

51) 이진두, 「대학생불교연합회 지도법사」, 『광덕스님 시봉일기』 7권, 도피안사, 2002, p.235.

52) 김광식, 「대학생불교연합회의 구도부와 봉은사 대학생수도원」, 『불교근대화의 이상과 현실』, 선인, 2014, pp.555-568. 그들은 전창열(서울대), 김금태(경희대), 김기중(경희대), 황기철(중앙대), 김선근(동국대), 이철교(동국대) 등이다. 당시 김금태와 이철교는 입학생이 아니었다. 김금태는 구도부 회장이었고, 이철교는 동국대 불교과 학생으로 김선근의 권유로 참가하였다.

53) 이들은 책과 경전을 통한 학문검행을 의도하였으나 성철의 단호한 가르침에 오직 화두 공안의 타파에 주력하였다.

54) 김선근과 이철교의 증언. 김선근은 무자화두를, 이철교는 마삼근 화두를 받았다고 한다.

55) <대한불교> 1966.2.27, p.4, 「韓國大學生聯合會求道部 50일 安居精進」에 상세하게 나온다.

한 모색을 한 자신감을 피력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대학생 불자에 대한 애정이 강렬하다는 점이다. 즉 불교의 인재 양성에 관심을 두었다. 요컨대 안거 정진의 교육에 성철의 불교사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주목할 측면이다. 그는 覺, 中道, 과학과 불교에 나타난 合理性이었다. 성철의 이런 측면은 그 수련에 참가한 전창렬의 회고에서도 찾을 수 있다.

내가 졸업한 직후, 대학교 후배들이 봉은사에 있었던 수도원을 만들고 들어가 있었는데, 후배들이 김룡사에 계시는 성철스님에게로 가서 공부를 하자고 해서 갔지요. 두달간 있었지요. 그때 성철스님이 거기에서 백일법문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최초의 법문을 하셨지요.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간 밤을 새우면서 용맹정진을 처음으로 하였지요.

내가 겪어 본 성철스님은 폭포수 같았어요. 성철스님은 한꺼번에 줄기치게 쏟아 부으셨지요. 그에 반해서 탄허스님은 보슬비 같았어요. 언제 젖었는지 모르게 젖었지요. 그것이 두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성철스님은 최상의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면 당신의 몸을 던져서 당위로 주장하셨어요. 나는 이런 것을 매일 스님에게 세뇌당했지요.⁵⁶⁾

이와 같은 대불련의 김룡사에서 50일간의 수련은 특별한 역사이었다. 그리고 그는 성철 역사에서도 특별한 행보이었다. 마침내 성철의 그 강의는 ‘운달산 법회’로 명명되었다. 운달산 법회는 김룡사가 있었던 산이 운달산이었기에, 김룡사에서 1966년 1~2월의 특별한 법회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제는 그에 담긴 역사적 의의를 추출하고자 한다. 당시 그 수련에 참가한 이진두, 전창렬이 백일법문의 ‘전신’이라고 강조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천제의 글이 참고된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에 접어들면서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 덕산거사가 후원하는 대학생불교연합회 회원들이 은사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수련을

56) 월정사 · 김광식, 『방산굴의 무영수』 하권, 오대산 월정사, 2013, p.192.

온 것이다. 부처님께서 녹야원에 오비구에게 설하신 초전법륜에 비견되는 큰 사건이기도 하였다. 뒷날 수계하여 원조라고 하였던 박성배교수, 원공·원기, 대연 등 십여명 참으로 큰 인연이 아닐 수 없다.

부처님의 초전 법륜의 의미를 정리하여 ‘중도’선언으로 설하신 성철 은사스님의 운달산 초설법문이야말로 한국불교사의 큰 획으로 기록해야 할 것이다.⁵⁷⁾

이렇게 천제는 성철의 그 설법을 ‘운달산 초설법문’으로 부르면서 큰 의의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 당시에도 성철이 최초로 공개 법문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기에 녹음을 하였으니⁵⁸⁾ 보관되지는 않았다.

뒷날 해인총림에서 백일동안 설하신 ‘백일법문’이 모두 이때 정리되었으며, 청법 대중들에게도 그 당시가 가장 뜻 깊은 시기이기도 하였다. 설법회는 일개월 가까이 이어졌고, 뒷 날을 위해 그 법문을 녹음하였다. 그러나 관리 잘못으로 테이프가 못 쓰게 된 것은 지금도 아쉬운 일로 기억된다. 당시 줄 판 등사기로 등사한 법문 첫 페이지 등사지를 여기 복사하여서 그 내용과 함께 그 날의 감명을 되새겨 본다.

불기 2508년 1월 22일 ... 중략 ...

김룡사 큰방에서 설하신 대중 법문 중 첫 번째의 말씀을 옮겨 보았다. 지금 중정직을 맡고 있는 법전스님을 비롯하여 도우스님 만오스님 도성스님 현경, 허주, 동진, 구한, 성일, 도선, 만수 스님 등 많은 스님들이 함께 하시었다. 교외 별전의 선종 지침을 정리하시고 즉심시불의 선지를 정립하시었으며 선교의 위치를 분명히 정의하시었고 그 실천을 강조하는 불교의 대강을 설교하시었다. 더욱이 초기 경전의 말씀 가운데 선종 최고의 선지가 일관되어 있다는 설명은 한국불교의 새로운 기준과 교판이 될 것이다.⁵⁹⁾

57) 천제스님, 「성철종사님을 모신 일들을 회상하며」, 『禪으로 가는 길』, 2006년 3월호, pp.80-81.

58) 이철교에 의하면 녹음을 하다 성철스님에게 들켜서 야단을 맞았다고 한다.

59) 『禪으로 가는 길』, 2006년 3월호, pp.80-81. 여기에 나온 대중은 1966년 8월 법회에 참가한 승려도 포함된 것으로 이해된다. 천제스님은 1966년 1~2월 법회, 8월 법회를 쉬어서 회고하였다.

그 법문은 1966년 1월 12일에 시작되었던 것이다. 성철이 최초⁶⁰⁾로 단행한 법문 장소는 김룡사 큰방이었고, 청강한 대중은 대불련측 10여명(학생, 지도교수 등)과 김룡사 대중 10여명 등 20여명이었다.⁶¹⁾ 그 당시 성철, 참가 학생, 대중이 함께 찍은 <사진 2>를 전한다.⁶²⁾



<사진 2> 김룡사에서 수행한 대불련 학생과 김룡사 대중스님

이 사진은 법회 도중에 찍은 장면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법회의 회향시에 성철, 덕산 이한상, 승산, 서경수, 박성배 등과 같이 찍은

60) 원택도 이를 ‘최초의 사자후’ 라고 하였다. 원택, 『성철스님 시봉이야기』, 장경각, 2016, p.272.

61) 이한상 거사와 행원스님은 법회 회향시에 내방하였다. 광덕(당시 봉은사 주지)도 와서 청강하였다는 구전이 있다. 광덕은 이때 성철을 처음 만났다. 이때 들은 김룡사 대중(비구승)이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필자는 사진에 나온 현경, 도건은 확인하였으나. 추가 몇 명의 승려가 있었다.

62) 성철스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온다. 불교신문은 이 사진을 협조 받아 신문에 게재하였다. 즉 2012년 4월 18일, 성철스님 연재 28, 「운달산 김룡사 下 ; 각별한 애정으로 구도부를 지도하다」에 보도하였다.

<사진 3>도 있다.



<사진 3> 성철스님이 김룡사로 찾아온 지성인(서경수, 송산스님, 이한상, 박성배)과 함께 봉암사 참배 후 기념 촬영

그러면 강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위의 <대한불교>의 보도기사에는 성철이 학생들에게 강조한 내용은 覺, 中道, 合理性이었다고 하였거니와 구체적인 과목(강의 주제)이 있었는가의 문제가 나온다. 이에 대해서 천제는 다음과 같았다고 회고하였다.

1. 無上大道 2. 離邊中道 3. 緣起實相 4. 眞如法界 5. 無我即空
6. 阿賴耶識 7. 三細六醜 8. 無作四諦 9. 智度唯識 10. 天台華嚴
11. 法性偈 12. 古祖正傳 13. 禪教圓教 14. 見自心性 15. 無心無念
16. 夢中一如 17. 寤寐恒一 18. 大圓鏡智 19. 頓悟漸修 20. 活句死句
21. 信心銘

무상대도는 문자에 있지 않고 심전을 개발하여 불지를 증득해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삼조 승찬대사의 신심명을 주석하고 해설하신 것으로 마감한 운달산에서의 법문이야말로 뒷날 ‘해인총림 백일법문’의 기초이며 선교를 자신에 찬 불교교리 전체를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정리한 중요한 법문이었다.

자신에 찬 은사스님의 법문에 환희심을 얻어 어려움을 즐거움으로 이겨 나간 그 날의 신심이 지금도 마음 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서투른 영어 실력으로 재생을 이야기한 원전을 번역하여 수련의 자료로 삼은 일들 또한 기억되는 일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시기에 설법을 듣고 신심을 발하여 대도를 이루고져 열심히 정진한 대중들... 오늘의 풍요에도 불평을 일삼는 지금의 출가자에 비하면 욕심을 초월한 현자들의 회상이었다는 생각이 든다.⁶³⁾

천제의 회고에 당시 그 과목 전체가 나온다. 제시된 과목과 1년 후 해인총림 방장 취임 후 행한 백일법문에서 나온 내용과 비교하는 것도 흥미로운 것이다. 본격적인 분석을 거친 후에 판단해야 하겠지만 김룡사에서 서의 이 강의가 백일법문의 골격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 천제는 이 법회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성철 은사스님의 운달산 법회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대중 회상이었다. 광복후 봉암사 결사가 전란으로 중도에 그치고 팔공산에서의 만 10년 은거의 시간을 보낸 다음 재출발을 한 시기이었다. 봉암사 결사에서부터 팔공산 성전암의 10년 은거 내력을 일러지 뒷면에 기록한 것도 운달산에 계실 때였다. 그 기록에 지난 20여년의 일들을 요약하고 있으며, 정법 실현에 고심한 일들이 짧은 메모에 담겨 있는 것이다.⁶⁴⁾

63) 천제 스님, 「성철종사님을 모신 일들을 회상하며」, 『禪으로 가는 길』, 2006년 3월 호, pp.81-82.

64) 위의 책, p.82.

천제는 위와 같이 운달산 법회에 대한 의의를 평가하였다. 즉 지난 20년간의 고투를 회고 하면서 정법 실현에 고심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타당한 평가이다. 그런데 천제의 회고에는 1966년 1~2월 법회만 주목하려는 잠재의식이 배어 있다. 왜 그렇게 천제는 후술할 1966년 8월의 법회는 간과하였는가?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서 나온 것이다. 즉 그는 1966년 봄 무렵, 성철이 해인사 백련암으로의 입주를 결정하자, 사전 준비를 위해 백련암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1966년 여름 법회는 김룡사에 지속적으로 상주하지 않았기에 전체 개요는 알 수 없었다고 보인다. 그래서 그가 전적으로 경험한 1966년 1~2월 법회만을 기록하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8월 법회의 사진에 천제도 나온 것을 보면 법회 회향 무렵에는 해인사에서 김룡사로 와 있었다고 보인다.⁶⁵⁾

이런 전제에서 1966년 8월, 김룡사에서 있었던 대불련의 수련에 대해서 살펴 보겠다.⁶⁶⁾ 당시 상황을 보도한 <대한불교> 기사를 제시한다.

지난 24일 김룡사(경북 문경)에서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의 구심적 요원인 봉은사 수도원생의 하기 구도 정진 수련회의 회향을 성철스님과 사내 대중의 성원 아래 성대히 가졌다.

동 구도정진은 8월 3일에 결제하여 24일 회향하는 21일 간의 수련이었다. 이 수련의 특징은 여느 불교학생회에서 치루는 수련이 아니고 승가의 스님과 함께 생활하는 엄격한 승규 생활이었다. 그러므로 수도원생은 일사불란의 자기 참구에 몰아적인 구도정신이 엿보였다. 모두가 지난 겨울방학 때 김룡사에서 50일간 안거를 난 사람이므로 승방생활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동기 수련이 논쟁 위주의 수도 생활임에 반하여 하기 수련은 완전히 화두 공안을 착관하는 생활이다. 모든 지도의 총괄은 김룡사 성철스님이 맡으시고 그 외 격물지도는 박성배선생과 진준열 선생이 맡고 있으나 여기에는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능소가 없고 다만 화두 공안을 깨뜨려 보려는 선

65) 천제스님은 8월에 행한 여러 법문 중에서 반야심경 법문만을 기억, 인식하였다. 이는 마지막 회향 법문시에 성철스님이 반야심경을 강조한 결과이다.

66) <대한불교> 1966.8.7, p.1, 「大學生佛敎聯 특별수련과 구도정진」

객적 의지가 도사린 듯 하였다.

하루의 일과를 보면 3시에 기상하여 예불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좌선 6시에 아침공양 7시부터 10시 30분까지 좌선 10시 30분에서 11시까지 사시맞이 예불 점심공양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좌선 5시 30분부터 저녁공양 6시 30분에서 7시 30분까지 역사(노동)를 마치고 저녁예불 이렇게 틈 사이 없는 정진 참으로 균율보다 엄한 승율이었다. 이러한 수련도 처음 2주간은 잠자는 시간이 있었으니 마지막 일주간은 용맹정진이라 하여 철야 구도정진이었다. 하루의 긴긴 해를 참구로 보내는 수도생의 모습은 초체한 감이 들어도 눈빛은 그 어느 도인의 눈처럼 맑고 빛났다. 이들이 겪는 수도적 구도는 한국불교의 장래를 염려하는 자기희생인 듯 하였다.⁶⁷⁾

위와 같은 대불련 구도부의 김룡사 정진은 8월 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21일 간의 수련이었다. 정진의 내용은 엄격한 청구에 의한 화두 참선, 운력 등이었다. 그 정진에 대하여 참가한 학생인 김춘송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우리가 다섯, 교수님 두 분과 우리의 경책을 맡아주실 스님들이 여섯으로써 큰방을 잡았다. 지금까지의 나를 버리고 부정하고 참다운 나 나의 본래 면목을 찾아 나를 재생케 하는 시간이 시작한다. 육신이 흩어질 것 같은 긴 긴 시간이 여기 경북 문경군에 자리 잡은 金龍寺에서 시작한다.

우리 대학생불교회 구도부 7명은 이번 하기 방학을 이용하여 3. 7동안의 정진을 한다. 전 2, 7일은 육조단경 강의와 참선과 저녁엔 천배 참회의 일과를 가졌다. 후1, 7일은 철야 용맹정진으로써 끝내기로 하였다.⁶⁸⁾

위의 회고는 위에서 소개한 <대한불교>의 기사와 거의 같다. 다만 수련대회의 개요를 보강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련대회 개요를 요약한다. 일정은 1966년 8월 3~24일이었다. 수련 내용은 청구에

67) <대한불교> 1966.8.28, p.4,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구도부 용맹정진 회향」

68) 김춘송, 「빛을 찾아서 - 山寺求道日誌」, <대한불교> 1966.9.4, p.3. 구도부의 정진 개요(8.3~24일)는 <대한불교> 1966.9.11, 「한국대학생 불교 구도부 7일간 철야 정진」에도 나온다.

의한 참선정진, 경전(육조단경 등) 강의 수강, 참회 정진(매일 천배), 용맹정진 등이었다. 참가자는 대불련 구도부의 학생 7명이었다.⁶⁹⁾ 지도교수(박성배, 전준열)와⁷⁰⁾ 승려가 함께 한 것이 특색이다. 이 수련에서도 성철의 지도는 철저하였다. 성철은 수련한 대학생들이 “새로운 불교, 대중의 불교, 인간의 종교”를 창조하는 데에 역군될 청년으로 인식하고 자신이 그들을 지도하였다는 환희심을 가졌다.⁷¹⁾

한편 1966년 8월, 김룡사에서 대학생들의 수련이 진행된 그 때에도 ‘운달산 법회’(21일간)로 지칭된 성철의 법문이 있었다. 당시 김룡사에서 수련을 하다가 그 법문을 들은 대학생이었던 김선근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거기다 같은 해 하안거에는 20일간 큰스님의 중도법문을 듣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당시 하안거 때, 큰스님의 법문은 『반야심경』으로 시작하여 『육조단경』 『금강경』 『신심명』 『중도가』 등으로 이어졌다.⁷²⁾

이렇게 성철은 경전을 활용하여 중도법문을 하였다. 김룡사 보제루에서 있었던 법회에 참가한 대중은 김룡사의 수좌 및 대중, 외부 승려, 구도부 대학생 등이었다. 이런 성격이었기에 당시 김룡사에서 정진을 하던 수좌인 대원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69) 김춘송(대불련 회장, 동국대)은 참가자를 그와 함께 박세일(서울대 1년), 설봉(경희대 4년)를 거명하였다. 그런데 7명중에서 큰방 정진을 한 대상자는 5명이라고 하였다. 2명은 도중에 탈락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홍애련(경희대)이 정진 현장을 찾아와, 김기중(경희대)이 탈락하였다고 하는데, 더욱 확인할 내용이다.

한편 김택근은 그들을 전창열, 김금태, 이진두, 김기중, 황귀철, 김선근 등이라 했다. 김택근, 『성철평전』, p.419. 이는 신뢰하기 어렵다. 더욱 확인할 내용이다. 김선근과 이철교는 참가하였다고 필자에게 증언했다.

70) 전준열은 그 무렵 동국대 교수로 『법륜』 1968년 9월호에 「선의 대중화」를 기고했다. 동국대 대학선원에서 선 강의도 하였다. <대한불교> 1964.11.22, 「대학선원 1년회고」

71) <대한불교> 1966.8.7, p.1, 「大學生佛敎聯 特別修練과 求道精進」

72) 김선근, 「내 인생의 등대」, 『가야산 호랑이를 만나다』, 아름다운 인연, 2006, p.194.

그 강설을 할 적에는 수좌들, 대중스님 그리고 신도와 몇 명의 비구니 스님들도 더러 와서 들었습니다.⁷³⁾

요컨대 비구, 비구니를 포함한 사부대중을 위한 법문이었다.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법전(해인사, 종정 역임)은 이렇게 회고하였다.

운달산 법회 끝에 법문 다 마치고 대중이 앉아서 소감 한마디씩 할 때 들어갔지요. 기념사진 촬영에는 참여했지요. 그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참여를 했는데, 대학생들도 있었고, 박성배, 김선근씨, 원공스님, 원기스님 등도 있었어요.⁷⁴⁾

즉 비구, 비구니, 대학생, 신도⁷⁵⁾ 등 다양한 사부대중이 참여하였다. 그래서 김선근은 자신의 그 법문 청취를 “큰스님의 중도법문을 듣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고 증언하였던 것이다.

비구니가 법문을 들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록이 전한다. 우선 당시 수련에 참가한 대학생이었던 이철교(동국대)는 비구니들도 청강하였다고 증언하였다.⁷⁶⁾ 이런 정황과 관련하여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비구니 혜춘의 증언을 제시한다.

그때 처음으로 큰스님이 상당법문 하신다고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이 가서는 처음으로 큰스님과 함께 사진을 찍지 않았겠습니까. 금생에 났다가 큰스님 모시고 사직 찍은 게 그때가 처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큰스님은 사직 찍는 스님 아닙니다. 그런 건 우리 상식 밖입니다. 그런데 사진 찍었

73) 대원, 『조계종단의 개혁과 정화의 제문제』, p.694.

74) 『나홀로 가노라 만고의 진리를 향해』, p.172.

75) 처사 1명도 사진에 나온다. 부산의 정신회 소속의 보살 3명의 인명이 전한다. 박원자, 『불필스님 회고록, 영원에서 영원으로』, 김영사, 2012, p.265. 그런데 백졸스님(부산, 옥천사)은 7~8명으로 필자에게 회고하였다.

76) 구도부 학생으로 참가한 이철교(전 동국대 출판부장, 불교서지학)는 비구니들은 양진암에 거주하면서 청강하였는데 불필, 인홍, 혜춘 스님을 기억한다고 필자에게 증언하였다.

다 아납니까? 너무 너무 좋았죠.77)

혜춘과 함께 그 법회에 참가한 인홍의 일대기에는 그 전후 사정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 이 서술도 근거에 의지한 것이기에 신뢰가 드는 내용이었다.

김룡사에서 성철스님이 최초로 대중에게 사자후를 도했을 때 인홍스님은 석남사의 모든 일을 접어두고 대중을 인솔해서 법회에 참석했다. 20여 일간 김룡사 양진암과 대성암에 머물면서 비구, 비구니 등 1백여명의 대중들과 함께 선(禪)과 교(敎)를 꿰뚫어 중도사상에 입각한 성철스님의 우례와 같은 법문을 들었던 순간을, 훗날 스님은 ‘얼마나 환희심이 나고 신심이 났는지 모른다’고 회고했다.78)

위의 내용은 그 당시 인홍을 따라 동참한 불필의 회고록에도 나온다. 혜춘과 인홍은 김룡사 법회 이전에도 성철을 따랐던 비구니이었다. 그때 인홍은 석남사의 주지이었다. 그래서 그는 석남사 비구니들을 법회에 참석하게 하였다. 불필 회고록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은사스님은 석남사 소임자 몇사람만 절을 지키라 하고 대중 모두에게 법회에 참석할 것을 명하셨다. 우리는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점촌까지 온 후 60리 길을 걸어서 김룡사에 도착했고, 양진암과 대성암에서 20일간 머물면서 큰스님의 사자후를 들었다.79)

30여명의 석남사 비구니들은 김룡사 산내 암자인 양진암과80) 대성암에 머물면서 법문을 들었다.81) 당시 법회에 참가한 백졸(부산, 옥천사)에 의

77) 성철스님 문도회, 『만고의 진리를 향해 나홀로 가노라』, 장경각, 2013, p.225.

78) 박원자, 『인홍스님 일대기, 길찾아 길 떠나다』, 김영사, 2007, p.289.

79) 박원자, 『불필스님 회고록, 영원에서 영원으로』, 김영사, 2012, p.263.

80) 당시 대중이었던 불필은 양진암을 통째로 빌렸다고 회고하였다.

81) 당시 석남사에 있었던 혜운(월정사 옥수암)도 김룡사에서 법문을 들었다. 김광식,

하면 김룡사 산내 암자(양진암, 대성암, 화장암)에 있었던 비구니 20여명도 범문을 들었다.⁸²⁾ 그래서 김룡사 운달산 법회 참가 비구니는 50여명에 달하였다. 불필은 범문은 『반야심경』을 시작으로 『육조단경』, 『금강경』, 『신심명』, 『증도가』 등의 중도범문이 있었다고 회고하였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용맹정진도 있었다고 부연하였다.⁸³⁾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천제(부산, 해월정사)는 8월의 법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저는 성철스님의 해인사 입주 준비 관계로 8월의 법회는 다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인 음력 7월 14일 범문, 보제루에서 하신 범문은 들었습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그날 찍은 사진에 내가 나오니다. 그때 큰스님께서는 반야심경을 갖고 범문을 감명적으로 하셨어요.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아제 아제 바라아제)을 재해석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금강경의 아상, 인상, 중생생, 수자상을 주관, 객관, 공간, 시간으로 파격적인 해석을 하셔서 저는 감명깊게 받아들였지요. 하여간에 운달산 법회는 해인사 백일 범문의 기반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⁸⁴⁾

이렇듯이 성철의 최초의 사자후, 사부대중에게 공개한 범문한 역사가 김룡사에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범문의 내용이 온전하게 전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운달산 법회는 성철 역사 및 1960년대 불교사에서 적절한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한편 8월의 법회를 마치고 기념으로 촬영한 사진 2건이 전한다. 즉 <사진 4>와 <사진 5>에는 ‘금룡사 기념 1966.7.14’(음력)라는 글자가⁸⁵⁾ 나온다. <사진 4>는 성철을 중심으로 한 김룡사 대중(수좌 포함, 25명)이 찍은 것이라 보인다.⁸⁶⁾ <사진 4>의 대중으로 천제, 동진, 도성, 만오,

『방산굴의 무영수』 상권, 오대산 월정사, 2013, p.427.

82) 백졸스님(부산 옥천사)이 필자에게 증언하였다.(2019년 9월 27일, 옥천사에서) 김룡사의 주지를 역임한 묘전스님은 양진암에 주석하였다.

83) 위의 박원자 책, p.263.

84) 2019년 9월 28일, 해월정사에서 필자에게 증언한 내용이다.

85) 이는 음력으로 보인다. 사찰에서는 하안거 해제 하루 전에 결제 법회를 한다.

삼소, 도명, 도선, 현경, 법전, 처사(1명)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⁸⁷⁾



<사진 4> 운달산 법회에 참가한 스님

86) 이 사진은 천제스님의 기고 글(p.80)에 나오지만, 거기에는 어떤 설명이 없다.
「성철종사님을 모신 일들을 회상하며」, 『禪으로 가는 길』, 2006년 3월호, p.80.
87) 필자가 2019년 9월 28일, 해월정사에서 천제스님에게 확인하였다.



<사진 5> 운달산 법회에 참가한 사부대중의 기념 촬영

<사진 5>는 김룡사 대중뿐만 아니라 김룡사 내외의 사부대중(100여명)이 모두 함께 찍은 것으로 보인다.⁸⁸⁾ 그런데 이들 사진에는 대중이 100

88) 이 사진은 『사진으로 본 통합종단 40년사』, 대한불교조계종, 2002, p.63에 나온다. 당시 그 사진집을 편집한 필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 설명을 하였다. 즉, “성철스님의 김룡사에서의 설법을 마치면서 기념 촬영(1966.7.14). 운달산 법회라고 불렀던 이 법회는 성철스님이 대중들을 상대로 한 공식적인 최초의 법문(20일)으로 유명하다.”고 서술했다.

여명에 달해서 대불련 소속의 학생들을 찾기 힘들다. 수련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법문을 모두 청취를 하였는가, 일부 학생만 들었는가? 아니면 사진 촬영 시에는 없었는지 궁금증이 일어나는 대목이다. 그런데 김룡사 그 현장에서 성철과 비구니들이 찍은 <사진 6>이 전한다.⁸⁹⁾ 이 <사진 6>에는 비구니들만 나오는데 이 사진을 게재한 원택은 ‘운달사 법회를 마치고’라 설명하였다. 혜춘 비구니가 감명적으로 기억한 그 사진이다.



<사진 6> 운달산 법회에 참가한 비구니 스님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종합하면 1966년 초반 무렵(1~2월) 행한 21주체의 법문에 이어 1966년 8월의 법문은 더욱 더 특별한 것이었다. 그는 성철이 자신의 불교사상을 대중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강렬한 의지의 산물이었다. 그런데 성철이 그 법문을 행한 구체적인 일정은 애매하다. 일

89) 원택, 『성철스님 행장』, 글씨미디어, 2012, p.108. 그런데 이 책의 사진 설명에는 “운달산법회를 마치고”만 나오지만 여러 증언을 고려하면 1966년 8월 장면으로 이해된다.

정 별, 경전 별의 내용이 없다. 막연하게 1966년 8월에 하였다는 내용뿐이다. 그리고 외부 승려가 참가한 배경, 전후사정도 알 수 없다.

한편 일부 기록에서는 1966년 8월, 이 범회만을 ‘운달산 범회’라고 하였다. 성철의 상좌인 원택의 서술을 제시하겠다.

8월 3일부터 8월 24일까지 봉은사 입사생을 중심으로 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구도부의 구도법회를 지도하였다. 참선정진 지도는 물론 20일 간 『반야심경』으로 시작하여 『육조단경』 『금강경』 『신심명』 『증도가』를 설법하며 중도법문을 하였다. 이것을 운달산 범회라고 하며 최초의 대중설법으로 기록된다.⁹⁰⁾

위의 원택의 기록을 인정하면 1966년 8월, 21일간의 대중법문은 대학생을 위한 법문 이라기보다는 사부대중으로 범회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1966년 겨울과 여름의 두 차례 범회를 모두 포괄하여 ‘운달산 범회’라 부르자고 제안한다. 그런데 성철의 법문 내용은 녹음이 되지 못하여⁹¹⁾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다. 이점은 매우 유감스런 역사이다. 법문이 녹음이 되었다면 성철 불교사상의 연구에 큰 기여를 하였을 것이다.

한편 김룡사 시절에서 누락할 수 없는 역사는 성철에게 감명을 받은 일단의 지식인이 성철의 상좌가 되어 출가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들은 박성배 동국대 교수, 당시 대학생이었던 이진두(서울대, 구도부)와 김금태(경희대, 구도부 회장)이었다. 이들은 1966년 1~2월 동안거 범회에서 성철의 법문을 듣고, 환희심으로 발심 출가를 준비하였다. 그래서 그 무렵 박성배 교수는 대학에 나가지 않고 출가를 위해 김룡사에 머물렀다.⁹²⁾ 이들 3인은 1967년 4월 3일, 해인사에서 성철을 은사로 해서 출가

90) 원택, 『성철스님 행장』, 글씨미디어, 2012, p.109.

91) 원택, 「후기」, 『백일법문』 상권, 장경각, p.333. 천제스님은 1966년 1~2월, 법문은 녹음은 하였으나 보관 상태가 좋지 못하여 활용치 못하였다.

92) 박성배, 「미국에서 강의한 『화엄경』 보현행원품」, 『광덕스님 시봉일기』 9권, 도피안사, 2008, p.53.

하였다.⁹³⁾ 그때에 지환(동화사)도 구도부 학생으로 동국대 재학 중이었지만 성철에게 영향을 받고 출가를 위해 김룡사에서 공양주를 하였다.⁹⁴⁾ 지환은 그 후 봉은사 학생수도원에 있다가 광덕을 은사로 하여 출가 득도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우리는 1966년 김룡사에서 성철은 2회의 공개적인 법문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겨울의 1차에서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였고, 여름의 2차에서는 일반 스님들을 중심으로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철의 상좌인 천제는 1차를 중심으로, 원택은 2차를 중심으로 운달산법회라 불렀다. 이제는 1차, 2차 법문 전체를 포괄하여 운달산 법회라고 불러야 한다고 제언을 한다. 성철은 1966년부터 자신의 불교사상을 공개적인 법문을 통하여 알리기 시작하였다. 왜 그런 결단을 하였는가? 그 이전의 은둔적인 행보를 고려하면 파격적인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이제 그의 나이가 어언 55세에 달하였다. 수행의 이력도 30년을 넘었다. 그리고 서울 도선사에서 지켜 본 불교 및 종단의 현실도 그의 결단에 참고가 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의 결단은 그의 사상을 불교계에 메시지 전달, 자기 정체성의 구현, 불교 혁신의 필요성 절감, 인재양성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것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 결단과 행보 즉 김룡사에서의 꿈이 있었기에 1966년 10월에는 해인사로 용감하게 가게 되었다. 그래서 성철의 김룡사에서의 꿈은 불교중흥을 위한 새로운 불교의 모색이었다. 때문에 그의 해인사행은 해인총림 방장의 준비, 한국불교 및 조계종단에 그의 불교관을 피력할 때가 왔음을 말해주었던 단서로 볼 수 있다.

93) 박성배는 원소, 김금태는 원공, 이진두는 원기라는 이름의 법명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3인은 그 후 모두 환속하였다.

94) 그때 박성배는 성철에게 배운 경전의 노트를 활용하여 예비 행자인 지환(당시 동국대 학생)을 가르쳤다. 지환, 「영원한 대자유를 위하여 일체를 버려라」, 『가야산 호랑이를 만나다』, 아름다운 인연, 2006, p.70. 이철교도 박성배의 그 강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IV. 결어

지금껏 성철의 김룡사 시절의 행적 및 운달산 범회에 담긴 내용, 성격, 의의 등을 조망하여 보았다. 이제 맺는말은 성철의 김룡사 시절에 꿈을 꾸었던 불교의 이상이 무엇이었는가를 가늠하면서 추후 성철의 김룡사 시절의 연구에서 보완할 측면을 피력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김룡사 시절, 성철이 꿈을 꾸었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필자는 성철은 새로운 불교, 대중의 불교, 인간의 종교를 모색하였다고 본다. 이는 성철의 언설이었다. 성철은 봉암사 결사(1947~1949) 당시는 ‘부처님 법대로 살아보자’고 표방하면서 古佛古祖의 遺則을 강조하였다. 이런 기존의 인식에서 성철은 새로운 불교로의 모색을 김룡사에서 모색하고 실천하기 시작하였다. 성철은 새로운 불교의 조성이라는 여건을 위해 대학생 엘리트 불자들이 필요했고, 그는 자신의 불교사상을 中道思想에 입각하여 표방하기 시작했다. 그런 표방이 1년 후의 해인총림 방장, 백일법문으로 구현되었다. 그리고 해인사에서는 정식의 승가대학을 설립하려고 추진하였다. 대학 설립도 성철의 새로운 불교의 모색이라는 구도에서 나온 것이다. 성철불교관의 변화에 대한 측면이 새롭게 이해되고, 연구되어야 한다. 이제부터는 김룡사 시절의 역사성과 관련하여 추구할 측면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성철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와의 상관성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해야 한다. 지금껏 이에 대한 관심이 미약하였다. 김룡사 시절, 성철이 대불련 구도부에게 베푼 자비, 교육, 법문은 대단한 관심이면서 가르침이었다. 성철은 한국불교의 미래가 대학생 불자들에 달려 있다고 보고, “젊은 불자들이 새로운 불교, 대중의 불교, 인간의 종교를 창조하는데 역군이 되어 줄게야”라는 말을 그 당시를 회고할 때이면 언제나 하였다고⁹⁵⁾

95) 원택, 『성철스님 시봉이야기』 2권, 김영사, 2001, p.78.

한다. 이는 인재양성이라는 구도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사상적인 관점에서의 설명이 요청된다.

둘째, 김룡사 시절 성철과 인연을 가진 인물과의 역사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김룡사에서 성철은 대학교수, 대학생 출신을 상좌로 받아들이는 계기를 만났다. 그 이후 이런 성격은 해인사에 가서도 지속되었다. 요컨대 김룡사 시절, 성철에게 영향 받은 인물(사부대중)은 누구이었고, 그들은 그 이후 어떤 행적을 보였는가도 흥미로운 연구 주제이다. 특히 대학교 출신의 지식인(박성배, 광덕, 홍교 등), 비구니(혜춘, 인홍 등)와 연관성을 새롭게 파악해야 한다.

셋째, 김룡사 시절의 법문(2회)과 해인사에서 행한 이른바 백일법문과의 상관성, 계승문제를 심층적으로 접근하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⁹⁶⁾ 백일법문의 내용 및 성격, 의의에만 매몰되지 말고 김룡사에서 시작된 성철의 지성을 역사적 맥락에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넷째, 김룡사 시절 성철의 은사인 동산에 대한 인식을 정리해야 한다. 즉 그의 은사인 東山 의 추모 및 동산 사진첩인 『석영첩』(1967.4 발간)에 대한 인식을 정리해야 한다. 성철의 은사인 동산은 1965년 4월 24일에 입적하였다. 성철은 범어사에서 거행된 동산의 영결식에 참여하고, 影讚을 지었다. 그리고 <대한불교>(1965.5.16)에 기고된 법연의 동산 법맥을 비판한 글(『中興祖 龍城祖師의 法脈은 東山大宗師에서 그치는가』)에 대한 비판도 하였다.⁹⁷⁾ 김룡사에서 동산에 대한 계승의식을 노출하였던 것이다. 특히 성철이 지은⁹⁸⁾ 동산의 사리탑(1967.4 건립) 비문에는 성철의

96) 성철의 맞상좌이고, 김룡사 시절을 지켜본 천제(해월정사)는 운달산 법회가 해인사 백일법회의 ‘모태’라고 주장한다. 김택근, 『성철평전』, 모파나무, 2017, p.418.

97) 김광식, 『동산대종사와 불교정화운동』, 영광도서, pp.340-343. 김룡사에서 성철을 만난 원두스님은 성철이 그 글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 비판하면서 그 비판의 글을 당신의 이름으로 공개 반박까지 하는 것을 고려하였다고 한다.

98) 성철이 동산 비문을 작성한 시점이 김룡사인지, 해인사인지는 애매하다. 성철의 맞상좌인 천제스님은 해인사 시절로 회고했다. 그러나 성철선사상연구원의 홈페이지 연보에서는 김룡사에서 지은 것으로 표기했다. 비문을 부탁한 인물은 광덕이었다. 성철은 기존 법상좌, 은상좌 등의 전법 개념을 비판하고 ‘문도’라는 개념

동산에 대한 인식, 성철의 문중의식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성철도 출가 은사, 법맥, 문중에 대한 현실인식을 하였다.⁹⁹⁾ 추후, 이에 대한 측면도 주목해야 한다.

다섯째, 성철의 삶과 1960년대 김룡사 시절과의 상관성을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의 문제도 역사적 맥락에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성철의 최초 법문을 단행한 내면의 지성, 결단, 사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성철은 성전암 시절에 쓴 것으로 추측되는 글에서 당시 불교계 현실을 “진리를 위한 入敎는 희소하고 대다수가 막대한 재산을 배경으로 한 불교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오직 영원한 자유를 위하여 일체를 不顧하고 決死 노력할 따름”이라고 다짐하였다.¹⁰⁰⁾ 김룡사 시절의 성철의 결단은 여기에 나오듯이 ‘결사 노력’의 출발이라고 하겠다.

지금껏 추후, 성철 연구에서 김룡사 시절과 연관하여 주목할 측면을 필자의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이런 점이 성철 연구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

으로 문장을 서술했다. 원두스님(죽림정사, 동산스님의 상좌)은 김룡사에서 성철을 세 번 만났는데, 그때 성철은 동산 비문의 집필 및 동산 문집의 추진은 자신이 하겠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피력하였다고 증언하였다.(2019년 12월 7일, 전화 인터뷰)

99) 김광식, 「동산의 법맥과 전법 - 용성 · 성철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전자불전』 17, 2015, pp.48-61.

100) 『고경』 62호(2018.6), pp.1-19, 「오직 진리만을 위하여」, 성철의 미발굴 노트(106면 분량)를 정리, 연재한 최원섭은 ‘큰스님의 묵향을 더듬다’라는 제목으로 2017년 1월부터 연재하였다. 이 글은 성전암 시절에 지은 것으로 필자에게 언급하였다.

참고문헌

- 김광식, 「이성철의 불교개혁론」, 『한국 현대불교사 연구』, 불교시대사, 2006.
- _____, 「봉암사 결사의 전개와 성격」, 『한국 현대불교사 연구』, 불교시대사, 2006.
- _____, 「대학생불교연합회의 구도부와 봉은사 대학생수도원」, 『불교근대화 의 이상과 현실』, 선인, 2014.
- _____, 「보문선사의 삶과 수행자의 정체성」, 『문학사학철학』 46·47호, 2016.
- _____, 「동산의 범맥과 전법 - 용성·성철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전자불전』 17, 2015.
- 김광식 · 원두, 『조계종단의 개혁과 정화의 제문제』, 중도, 2018.
- 김택근, 『성철평전』, 모과나무, 2017.
- 법전스님 외, 『가야산 호랑이를 만나다』, 아름다운 인연, 2006.
- 유철주, 『성철스님을 그리다』, 장경각, 2018.
- 원 택, 『성철스님 시봉이야기』, 김영사, 2001.
- _____, 『성철스님 행장』, 글씨미디어, 2012.
- 서재영, 「퇴옹성철의 백일법문에 대한 고찰」, 『한국불교학』 42, 2005.
- _____, 「근·현대 불교에서 퇴옹성철의 역할과 백일법문의 위치」, 『선학』 48, 2017.
- 조명제, 「백일법문과 근대불교학」, 『백련불교논집』 16, 2006.
- 조성택, 『퇴옹성철의 깨달음과 수행』, 예문선원, 2006.
- 최원섭, 「백일법문에 보이는 퇴옹성철의 불교인식과 근대불교학 활용」 『한국 불교학』 75, 2015.
- 천 제, 「성철종사님을 모신 일들을 회상하며」, 『禪으로 가는 길』, 2006년 3월호.
- 송 암, 『광덕스님 시봉일기』, 도피안사, 2008.

Abstract

Seongcheol's Dream and Kimryongsa Temple's Undalsan of Public Lecture(1966)

Kim, Kwang-sik
(Professor, Dongguk Univ.)

This review explores the history and history of Kimryongsa Temple, which was omitted from Seongcheol's previous research. I would like to highlight the outline and character of Undalsan of public lecture(1966) during the Kimryongsa period, which has been perceived as negligent in Sungcheol's research until now. Through this, we want to explore the historical activities related to Seongcheol's intellect and ideas.

To this end, the following points will be explored in this consideration: First, I would like to outline Seongcheol's days as Kimryongsa Temple(1965-1966). Second, we would like to explore the outline and character of the Undalsan public lecture, which was conducted twice at Kimryongsa Temple. Third, we would like to explore the background of Sung-chul's 10 years of seclusion before Kim Ryong-sa Temple and his public career as he moved into Kimryongsa Temple. Sung-chul wanted to shed light on why he publicly emphasized his ideas from Kim Ryong-sa Temple. In other words, Seongcheol strongly expressed Buddhist innovation and Buddhist revival during the Kim Ryong-sa period, which is to be noted. Fourth, during the days of Kim Ryong-sa Temple in Seongcheol, there was a visit by members of the Association of University Student Buddhists (the Salvation Sect) to explore the history of this. Fifth, we not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law carried out at

Kimryongsa Temple and the one at Haein Temple. Research on the Baekil public lecture has deepened, but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outline and content of the lecture carried out at Kimryongsa Temple. Therefore, the Undalsan public lecture raised the need for research.

The content of this review will be an important subject in the track record, thought and reform of the season.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contents raised in this study will be used as an important point of view in the history of Buddhist Jiseongsa, Jeonghwa Movement and Reform Movement in the 1960s.

Key words

Seongcheol, Kimryongsa, Undalsan of public lecture, Baekil public lecture, Reform Movement, University Student Buddhist Association